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을 산업 현장에서 뒷받침하자

미 대사 피습 빌미 종북 공세는
거짓말에 근거한 마녀사냥일 뿐,
아무도 이에 속지 말라

관련 기사 3면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자 투쟁

16 면

신자유주의는
노동계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8~11 면

계급이란 무엇인가

12~14 면

초좌파주의란 무엇인가

6~7 면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에
당당하게 나갈 것”

4 면

개악 합의 기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5 면

누구의 말일까요?

“내가 당신네 지역에 늑대를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노숙자 문제를 갖지 않게 될 것”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돈 영

“지금은 새정치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

미국 대사 피습으로 종북몰이 시동 건 새누리당 박대출, 이때다 싶어서 다 엮네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위[미국 대사 피습]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의 신종 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리퍼트 대사 패유를 기원하는 ‘광기’는 미국에 대한 숭배주의에서 비롯됐다.”

미국 <뉴욕타임스>, 패유 기원 부채춤이 예사롭진 않았던 듯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을 만나 던진 첫 질문, 정부가 여전히 진실 은폐 중입니다…

“죽음으로써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

“역대 천황은 반도의 민초들에게 갓난아기처럼 애무육성하심으로써 오늘의 영예[병역 복무]를 반도 민중에게 짊어지게 하신 성스러운 배려에 감격한다.”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 1순위로 뽑은 최규동이 쓴 논문, 친일파 스승 1위 아닌지?

“정기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닌 마비를 초래한다.”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 웬디 셔먼, 한일 관계 악화에 고골적으로 불편한 기색

“전국철거민연합은 사기꾼 집단…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 해먹을 사람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의 용산 참사 당시 발언, 박근혜가 괜히 뽑은 게 아니군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님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습니다.”

경남지사 홍준표의 궤변, 경남도민들은 ‘내가 준 표 돌려 달라’는데

“억 소리 나게 탁치고 싶다.”

“턱 하니 혁 하고 대법관 되려고 하네.”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은폐 의혹 받는 대법관 후보 박상욱에 대한 SNS 반응

“50.5%”

유니세프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고은이·장호중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해 내내 병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네 차례나 벌인 파업은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것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서울대병원 분회는 서울대병원 사측이 설립한 영리 자회사 헬스커넥트의 불법성을 폭로하며 의료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거는 구실을 했다. 이는 다른 병원의 영리자회사 추진도 주춤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공격해 투쟁의 기선을 잡으려 한다.

첫째, 정부는 국립대 병원 전체에 오는 6월까지 1차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별 병원의 단협 개악이 여의치 않자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에 서명을 노동자 과반에게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단협 해지를 통고하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사측도 지난 연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박경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이런 조치가 모두 기존 단협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존 단협에는 단협 기간이 만료



국립대 병원 ‘정상화’는 의료의 비정상화 2014년 7월 22일 서울대병원 파업 집회.

되기 한 달 전(10월 7일)에 교섭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병원 측은 10월 24일에야 교섭을 요청했어요. 당연히 노조는 단협이 자동 갱실했으므로 이를 거부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연말에 단협 해지를 ‘통고’한 거예요. 이건 무효입니다. 또 기존 단협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시 노조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있어요. 사측은 이것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니다. 마한가지로 이것도 무효죠.”

“최근 노조 가입자만 4백 명”

서울대병원 분회는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해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둘째, 특히 서울대병원 사측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안에 2차 ‘정상화’ 조치의 핵심인 성과급제 도입도 포함시켰다. 공공기관들 중 가장 먼저다.

박경득 분회장은 “성과급제 도입은 전체 임금을 하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고 단결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사측은 퇴직수당도 없애려 한다. “원래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대신 퇴직수당을 조금 올려 준 건데 이걸 없애면 퇴직연금이 크게 줄어요. 병원 측은 손실분을 임금에 반영해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 재직자와 신규 노동자들 사이를 분열시킬 수 있어요. 이건 절대로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는 최근 노조 가입자가 4백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잘 보여 준다. 특히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들의 불만이 크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곧바로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병원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세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진단검사 쪽도 사실상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응급환자도 아닌데 새벽 두 시에 MRI

를 찍으라고 보내요. 환자한테는 두 달 기다렸다 찍을래 아니면 새벽에라도 찍을래 하는 거죠. 환자들이야 당연히 어떻게든 진료를 받으려고 새벽에 와요. 그런데 이런 식이면 돈벌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환자도 힘들고 노동자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이 서로 믿고 협조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실수가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박경득 분회장은 “아직 다른 국립대 병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 없어서 고립될까 봐 걱정도 되지만 6월에 파업하면 너무 늦다고 봐요. 그래서 4월에 제대로 파업해 보자고 결정한 겁니다” 하며 결의를 다졌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는 3월 19일에 종식집회를 열고 투쟁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다른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파업에 돌입하면 효과도 클 것이다. 이런 일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현대중공업은 여성 노동자 희생시키는 짓 중단하라

여성·남성 노동자가 단결해 맞서야 한다

김지태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사무직 여성 노동자 5백97명을 대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1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인 여성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지난해부터 사무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바로 한 달여 전에는 사무직 관리자 1천여 명을 해고했다. 단기 사내 하청 노동자 수천 명도 잘려 나갔다. 그래서 ‘남편이 1차 정리해고 됐는데 이번엔 나보고 나가라

한다” 하는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공격의 배경에는 심각한 조선업 위기가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3년보다 34.7퍼센트가 감소했다. 국내 조선사들도 수주량이 크게 줄었고 수익성도 나빠졌다.

그래서 사측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 해고요건 완화, 성과연봉제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공세가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

획이 알려진 직후 현대중공업노조는 “쟁의행위를 포함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민주파 대의원들이 적극 제기한 것이다.

울분

3월 9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주최한 구조조정 반대 사내 집회에는 해고 대상자인 여성 노동자 3백여 명과 남성 노동자 5백여 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18년 만에 부분파업을 벌이고 다수의 투쟁적인 대의원들을 선출하며 투쟁열망과 잠재력을 보여 줬다. 민주파

대의원과 활동가들은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사측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방어하며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공격은 다른 조선사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기감 속에 얼마 전 주요 조선사 노조들이 모여 조선업종노조연대를 출범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중요한 요구로 내걸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빌미로 한 탄압 강화 계획 중단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종북' 마녀사냥으로 확대하려 한다. 사건 직후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김기종 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여덟 번이나 방북했다는 등의 얘기를 흘리며, 그를 '종북' 인사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는 김기종 씨가 "진보당이 속해 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했고,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기종 씨의 행위만 놓고 보면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면 될 텐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굳이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하려 애를 쓰고 있을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가깝게는 4월 보궐선거에서 주로 경쟁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한 것에서도 그 의도가 드러난다. 새정치연합의 비판대로,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런 구시대적인 '막말 종북 물이'로 표를 얻어 보려는 매우 비겁한 정치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사건으로 단지 새정치연합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진보·좌파와 노동자 운동을 공격하려고 한다. 진보당 해산 때와 마찬가지로, 좌파와 노동자 운동에 '종북'이라는 낙인을 찍어 마녀사냥을 하려는 것이다. 우익은 김기종 씨가 평소에 주장한 평화협정 체결,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북한 당국의 주장과 같이라며, 동시



피습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등으로 탄압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사진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비상 경계 근무에 들어간 경찰특공대 모습.

에 좌파 단체들과 평화 단체들을 '종북'으로 비방하고 있다. 우익은 이를 통해 4월 민주노총 파업에도 찬물을 끼얹고 싶을 것이다.

테러방지법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종북' 마녀사냥에 나서려는 것을 진보·좌파 운동가들은 모호하지 않게 반대해야 한다.

김기종 씨가 '종북' 인사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북한 서적(《영화예술론》 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를 '종

북'으로 직결시키는 것은 억지다. 《영화예술론》 같은 책은 "상당수 북한 영화 관련 논문에서 참고 문헌으로 활용될 만큼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흔히 읽히는 책이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북한의 영상이나 글을 볼 수 있는 시대에, 또 심지어 조·중·동 같은 우파 언론 기자들도 취재차 북한 웹사이트(예컨대, "우리 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들여다 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말이다. 김기종 씨의 평소 주장이 북한 당국의 주장과 같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공격 사건을 계기로 이미 진보·좌파 단체 일반에 대한 내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의 행위를 막기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단지 '종북'만을 겨냥한 게 아닐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계속 좌절돼 온 테러방지법 제정도 밀어붙일 태세다. 이미 지난 2월 새누리당 의원 이병석 이 주도해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해 냈

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제2의 국가보안법임을 알 수 있다. 테러 개념을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해, 공안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통신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진보·좌파 진영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으로 노리는 것은 결국 투쟁적이거나 좌파적인 노동자 운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 배경 — 미국의 대외 정책

노동자연대의 3월 5일 성명이 지적했듯이, 김기종 씨가 마크 리퍼트를 공격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마도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 웬디 셔먼의 망언이었을 것이다. 2월 27일 웬디 셔먼은 한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과거의 적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해서 안 된다며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위안부 문제마저 덮고 동맹을 강화하라는 웬디 셔먼의 당시 망언에 당연히 한국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에 항의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전반적 정치 상황이 나쁜데 국가 탄압의 수위를 높일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성명이 강조하듯이 미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근본

배경임을 봐야 한다. 실제로, 사건 직후 김기종 씨는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지금 진행중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키리졸브 훈련을 가리킨 것이다.

"값싼 박수"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따라 호전적 계획들이 반영돼 왔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은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인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공식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을 거쳐 기존의 대북 공격 계획을 통합한 작전계획 5015를 3월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작전 계획5015에는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빌미로 한 한미 양군의 군사적 개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국의 우익은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실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할 기회로도 이용하려 한다. 이것이 이들이 '종북' 공세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우익들 사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조차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만큼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해, 파장이 큰 일이다.

그런데 사건 직후에 〈조선일보〉 등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식화할 적기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은 청와대의 우려에도 3월 말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정할 의원총회를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뤄질 한미 동맹 강화는 섬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드 배치나 호전적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야 하는 까닭이다.



총파업 같은 노동자 대중 행동이 대안이다

마르크스·레닌·트로츠키 등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대리하는 개인적 폭력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와 체제를 지키는 자본주의 국가에 흠 하나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보·좌파 운동가들은 4·24 총파업 같은 노동자 대중 투쟁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제국주의에 진정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국면이기 때문이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인터뷰

“4·24 연가투쟁, 탄압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전교조가 2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맞춰 연가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월부터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2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4·24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요구들이 전교조에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2015년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강도 높은 민생 파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이 모든 것이 자본과 재벌은 배 불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탄 내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민중이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전교조도 함께 복무하려고 합니다. 전교조는 4월에 연가투쟁을 결정했습니다. 보통,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전교조는 쟁의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가 투쟁은] 가장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입니다. 연금 개악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뚫리면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가 파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를 같이 걸고 있습니다. 가장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계속 탄압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 ‘법외노조’라고 하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결권마저 정부에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은 전교조의 과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4월 16일 많은 시민,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것은 자본과 권력의 총체적인 부도덕과 부패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4·24 연가투쟁 결정 후,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9년 만의 연가투쟁이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가 집단적인 연가투쟁을 했을 때는 항상 탄압이 뒤따랐습니다. 징계라든지,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권이 휘두를 수 있는 칼날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현 전교조 집행부는 지도부 선거운동 때부터 2015년 정세를 판단하고, 피할 수 없다면 연가투쟁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조합원 동지들과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전교조의 4·24 총파업 동참 결정은 4월 총파업 건설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공적 연금 개악 저지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

뿐만 아니라 노동자 운동이 함께 투쟁한다는 것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도 서서히 자신감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내걸고 연가투쟁을 벌이면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교사들의 이기주의”,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라고 비난할 텐데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어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적연금으로의 전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악이 뒤따르고, 이것이 또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는 것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토대

가 될 것입니다.

학습권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노동자가 될 것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아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의 행복뿐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교육노동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든 공무원이든 자신의 삶이 안정돼 있을 때 직업적으로도 자신의 업무와 과제를 충실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노후가 불안하고 현재 삶이 불안하면 충실하게 아이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과 교육의 질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파업에 전교조가 함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십시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교사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제약된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동조파업으로 직접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조 파업 때에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교조도 노동자 투쟁에 노동자로서 결합하고자 하는 결의가 모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의였던 만큼 이번에 꼭 승리하는 투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더욱더 노동자라는 동질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격은 4·24 연가투쟁 이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24 연가투쟁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은 단순히 하나의 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본의 축적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면서 고통은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4월뿐 아니라 계속해서 집요하게 노동자·민중에게 칼날을 들이댈 것입니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4월에 [공격을] 막는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정책들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4월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상승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일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권이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저항이 거셀 때만이 자본이나 정권이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정권에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투쟁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정권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4월 총파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된 노동자 대오가 선제 투쟁을 해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저항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의 연가투쟁은 그동안의 상태로 보면 조합원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현재 정세에서 투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나 이기주의 문제로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당하고 힘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인터뷰·정리 김인숙

금속노조가 4·24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다

전교조·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연맹이 잇따라 4월 24일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 결의로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로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결정에 기대를 내비쳤다.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금속노조가 실질적으로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파업의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 결정은 이런 투쟁을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결정은 현장의 좌파 활동가들의 노력이 빛을 값진 성과이기도 하다. 노동자연대, 현대차 금속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등 좌파 활동가들은 기아차 신철수 대의원이 발의한 ‘4·24 총파업 결의를 위한 수정안’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하루 만나질 만에 활동가 80여 명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신철수 대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첫 직선 민주노총 위원장인 한상균 동지와 집행부가 4월 24일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랑찬 금속노조 또한 4월 24일 총파업을 지지하고 함께합시다.”

수정안

금속노조 지도부는 4·24 총파업에 대한 안팎의 기대와 지지 속에, 수정안의 취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박수로 투쟁 계획을 통

현장의 활동가들, 전투적 투사들이 대의원대회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층에서 총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과시켰다.

이로써 금속노조는 애초 지도부가 원안으로 제출한 ‘노동법 개악안 국회 상정 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총파업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에 더해,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세부 전술을 투본 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제 금속노조 전 조직이 대의원대회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4·24 총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내용인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는 금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

무엇보다 잘 조직돼 있는 금속 노동자들이 제 힘을 적극 발휘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공세에 맞선 투쟁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의원대회 결의가 자동으로 힘있는 총파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활동가들, 전투적 투사들이 대의원대회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층에서 총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허수영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투쟁 방침에 복무한다”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대차 8·18 신규채용 합의를 둘러싼 논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해야

박근혜 반노동 공세의 핵심 중 하나는 파견 확대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정몽구 보호법’이라 불리는 사내하도급법 도입까지 제시했다. 이는 파견을 전면 합법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다.

노동운동은 파견 확대를 저지하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적극 엄호해야 한다.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이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을 도모해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당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은 금속노조 중집의 잘못된 결정 - 현대차 사측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 - 을 바로잡고자 안전을 발의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날 대의원대회는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등의 반발 속에 이 안전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규직 금속노조 위원장은 ‘4월 총파업을 앞두고 우리끼리 논란을 벌여선 안 된다’며 사실상 우파 대의원들에 힘을 실어줬다. 일부 좌파 활동가들도 노동조합 내 분열을 우려해, 비정규직지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길 주저했다.

그러나 잘못된 중집 결정을 바로잡는 것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단결을 추구하는 길이었다. 8·18 합의는 현대차 뿐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등 많은 불법파견 작업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노조 내 분열을 무릅쓰고 논쟁을 벌여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을 추구했어야 한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각개격파하려는 지금,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추구하는 것은 4월 총파업 조직과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박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조를 보여 준 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발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박근혜는 올해 들어 수차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여기에 발맞춰 주고 있다. 3월 10일 “영유아보육법 4월 국회 우선처리 등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처리하기 위해 …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4월 국회 가이드라인을 밝힌 셈이다.

정부·여당과 새정치연합은 같은 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안정화가 요구”되고, 그

에 따라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합의문과 같은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또,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이 충분치 않았으며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대타협기구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 기구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미련을 버려야

그럼에도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불필요한 양보를 하고 있다. 가령, 3월 7일 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처장은 여야가 대타협기구 합의문처럼 발표한 중간보고에 동의해줬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항의하자 김성광 사무처장은 “그 정도 양보 안 해 주면 여야가 전문가들과 일사천리로 개악할 수 있고 강변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는 처음부터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양보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사수넷’의 비판에 대해, 대타협기구 참여(협상)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병행 가능하다고 전혀 해악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대타협기구 안에서 양보를 전제로 한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조합원들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의지를 높일 수 있겠는가!

다행히 3월 9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중간보고 합의문은 “공투본의 기본 입장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추진할 수 없다” (전교조 성명서)며 거부됐다.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투본이 합의한 것처럼 중간보고 발표를 했다. 이것은 대타협기구 종료를 앞둔 여야가 단수 또는 복수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준비해 놓았다”며 향후 “토론 과정에서 … 우리 입장을 말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노총과 교총 지도부가 공투본 대표자회의 결정 사항을 무시한 채 여야의 중간보고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

한편,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합의해 준 바 없다고 하지만, 언론들은 중간보고 내용에 공무원노조 집행부도 합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처럼 중간보고에 합의해 준 바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맞다. 그래야 기층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으로의 제 확대’를 조건으로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명칭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다. 게다가 이번 여야의 중간보고 발표는 새정치연합조차 공적연금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 안에서 무엇을 양보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당장 대타협기구를 탈퇴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3월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조직에 집중하자. 그리고,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4월 파업과 범국민대회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책임간사



근로자연사상 노동자 연대

노동자들의 분위기와 무관하게 초좌파적으로 벌인 봉기 “3월 행동”으로 독일 공산당은 재앙적 결과를 맞이한다.

초좌파주의란 무엇인가?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존 물리뉴가 1985년에 쓴 글을 번안한 것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황 하나는 다른 사회적 소수집단처럼 자신들만의 언어를 발달시키는 경향이다.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와 다르게 사용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주된 활동이 노동계급과 소통하는 일이고, 특수용어로 말하면 그 소통을 종종 가로막고, 우리 단체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특수용어도 일부 있다. 그 용어들은 일반 대중이나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폐지라는 우리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아 관심 갖지 않는 문제들과 현상들을 이해하고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발(만) 앞서기

그 적절한 사례로는 마르크스 자신의 개념인 잉여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초좌파주의다. 이 용어들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초좌파주의에 관해서는 우선 이 말이 결코 흔한 용어가 아니긴 해도 좌파 안에서는 비교적 널리, 그러나 종종 느슨하고 부정확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주류 개혁주의자들에게 초좌파는 사

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일종의 욕설이다. 스탈린주의자들과 유러코뮤니스트들에게 초좌파는 의회를 통하기보다 혁명을 통해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초좌파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레닌이 주로 발전시키고 분석했던 개념이다. (레닌 자신은 ‘좌익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 방금 말한 집단들은 다 레닌을 초좌파로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초좌파주의의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는 무엇일까? 아마 이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근본 전략 – 자본주의 내의 기초적 노동계급 투쟁을 국가 권력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정치 투쟁으로 바뀌게 – 과 연관지어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제를 달성하려면 혁명가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원칙 – 노동계급 전체의 역사적 이익 – 을 굳게 고수하면서, 대중적 노동자 운동과 최대한 가깝게 접촉하고 참여하려 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적 리더십은 노동자 대중의 착각과 편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서는 것을 뜻한다. 그런

데 너무 앞서는 바람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딱 한 발만 앞서야 한다. 레닌은 이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혁명이냐 돼 사회주의를 일반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 순간 사슬 전체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다음 고리로 결연히 전진하게 해 줄 사슬의 특정 고리를 찾아내고 이를 전력으로 움켜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렇듯 초좌파주의란 추상적인 ‘좌파적’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대중 운동에 초연하기, 즉 대중 운동과 필요한 연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려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런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레닌의 용어를 빌리면, 사슬의 다음 고리를 찾지 않고 그 결과 사슬 전체를 놓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초좌파주의는 자칭 혁명가들이 계급 세력 균형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자기들의 주관적 희망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의식적 혁명가들과 나머지 노동계급 부분 사이의 격차를 불필요하게 키운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초좌파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난다. 극단적 사례로는 이행기 없이 곧바로 무계급·무국가 사회로 도약하겠다는 아나키즘이 있다.

테러리즘도 초좌파주의인데, 그것은 노동계급 대중의 혁명적 폭력을 개인

들의 폭력 행위로 대체하려 한다.

추상적 토론과 선전 위주의 활동을 하는 일부 마르크스주의 학생 서클들은 임금 체제에 반대한다면 임금 인상 파업에도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

오늘날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우려해야 할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또는 ‘코뮤니스트적’ 초좌파주의다. 그것은 아나키즘처럼 완전히 독자적인 정치 경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주류 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좌익적 이탈이다.

이것도 형태가 다양하고 역사적 사례가 많다. 예컨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동맹 동료였고 1848년 혁명 패배 후 망명자 군대를 조직해 독일로 진격하길 원했던 아우구스트 빌리히와 카를 샤퍼, 또 러시아 전역에 혁명적 상황이 무르익기 전인 1917년 7월 무장 봉기를 일으켜 권력을 잡길 바랐던 페트로그라드의 일부 노동자와 병사 등이 있다.

그러나 초좌파주의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때는 의문의 여지 없이 1917~21년 코민테른 초창기였다.

당시에 진정한 국제적 초좌파 세력이 코민테른 내부와 주변에 존재했다. 그 주도적 인물로는 이탈리아의 아마데오 보르디가, 네덜란드의 헤르만 호르터와 안톤 판네쿱, 영국의 실비아 팽크허스트가 있다. 이 ‘좌파 공산주의’ 경향은 극도로 교조적이며 추상적으로

만 사고하는 일부 지식인들과 새롭게 급진화했지만 아직 전략·전술적 사고를 배우지 못해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려는 젊고 경험이 부족한 혁명적 노동자들 사이의 융합이었다.

이 경향 특유의 견해는 수구적 지도자들이 이끄는 노동조합에서 분리해 ‘순수한’ 혁명적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의회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노골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정당과 대중적 개혁주의 정당이 충돌할 때 후자를 지지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은 ‘책략 거부, 타협 거부’라는 명목으로 견지됐다.

레닌은 그의 가장 중요한 소책자 중 하나인 《좌파 공산주의 — 유치증》을 써서 초좌파적 주장들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레닌은 혁명가들에게 마땅히 노동조합에 남을 것과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노동조합 속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고, “부르주아 의회와 그 밖의 다른 모든 형태의 수구적 기관을 무시할 만큼 힘이 막강하지 않은 이상 그 안에서 분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비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식의 발전이 더딘 노동자들을 기만적인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처분에 맡겨두는 꼴이 될 것이라며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의식 발전이 더딘 인자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지, 부

유러코뮤니즘

1970년대 후반 소련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동시에, 개혁주의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공산당 주류를 뜻한다. 서유럽 공산당들이 먼저 변신해 ‘유러코뮤니즘’이라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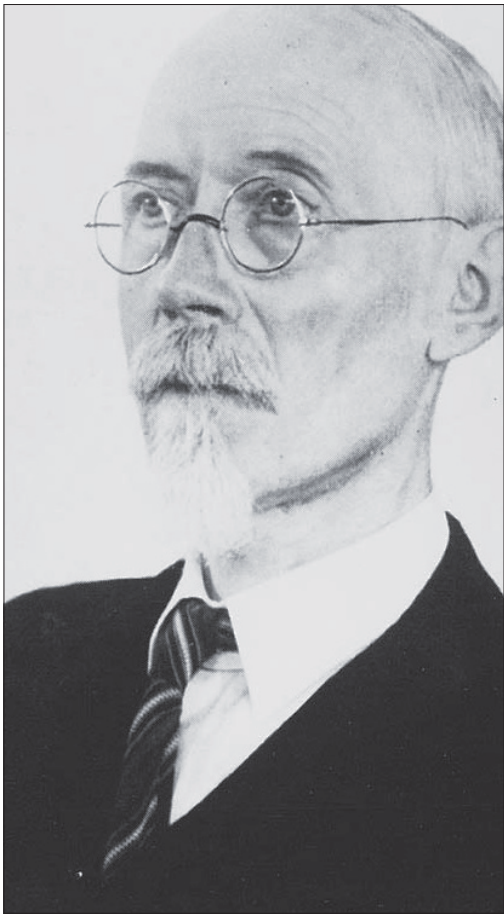




아마데오 보르디가



헤르만 호르터



안톤 판네콕



실비아 팅크허스트

자연스럽고 유치한 ‘좌파적’ 구호로 그들과 자신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결국 레닌의 주장이 승리했고,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는 코민테른에서 거부됐다. 만만찮은 경향으로서 좌파 공산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에게 기반을 제공했던 혁명의 물결이 퇴조하자 살아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초좌파주의의 경향은 코민테른 내부, 심지어 그 지도부 안에 가까스로 존속했고, 특히 독일에서는 강력했다.

공세

초좌파주의는 1921년 독일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혁명적 상황을 유발하려 했던 재앙적인 3월 행동(붕기)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노동계급 대중의 정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었다. 그 결과 공산당원 노동자와 비(非)공산당원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공산당의 당원 수는 처참하게 감소했으며, 지배계급은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이

초좌파주의자들은 ‘공세 이론’을 개발해, 혁명가들의 임무는 때를 가리지 말고 공세에 나서고, 언제나 전진하는 것이고, 노동계급의 전위는 여봐란듯한 행동으로 계급의 나머지 부분에게 ‘충격’을 주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트로츠키와 함께 다시 총대를 메고서, 혁명적 당은 공격뿐 아니라 질서 정연한 퇴각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으로 직행하는 투쟁은 오직 공산당이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얻을 때만 시도할 수 있다. 혁명가들은 노동계급의 기본적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들을 둘러싼 많은 투쟁(공세적 투쟁뿐 아니라 방어적 투쟁도 포함한다)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그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몇 달 뒤에 채택된 개혁주의 정당과의 공동전선 전술들의 기초가 됐다. 공동전선 전술은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선 방어적 투쟁을 위해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가장 기초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조차 개혁주의자들이 한결같이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고안됐다.

초좌파주의에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다. 바로 관료적 초좌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평당원이나 평조합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관료 지도부가 이들이 직면한 실제 현실과 이들

에게 닥칠 위험을 도외시한 채, 좌파적 이미지를 얻으려고 겉보기에 급진적인 구호와 명령을 발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러시아 혁명의 관료적 타락에서 비롯한 관료적 초좌파주의는 1923년 독일 혁명 패배 후 지노비예프 지도 하의 코민테른에서 득세했다. 이 초좌파주의는 나중에 스탈린이 선언한 ‘제3기’, 즉 1928~34년에 기괴한 형태로 널리 확산됐다. 그 기괴함인즉, 사회민주당에 ‘사회 파시스트’라는 딱지를 붙이고는 히틀러의 부상에 맞서 그들과 공동 행동하기를 거부했고, 따로 적색 노조를 만들라는 지령을 내려 기존 노동조합을 분열시켰다.

이것은 바로 레닌이 《좌파 공산주의》에서 비난했던 정책들이었다. 비록 그 기초가 미숙함에서 냉소주의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이제 초좌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은 망명 중인 트로츠키의 몫이 됐다.

소종파들

초좌파주의의 고전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코민테른 시기라면, 이는 오늘날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초좌파주의가 지금 좌파들이 직면한 주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80년대 후반의 급진화는 다양한 초좌파 소그룹들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당시의 좌파 정치에 영향력을 일부 행사했지만 그들의 압도 다수는 보안법으로 국가 탄압을 받아 조직이 깨졌거나, 소련 붕괴의 여파 속에서 운동을 포기했거나, NGO나 개혁주의 정당 속으로 용해됐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독자 대부분이 거의 들어 보지도 못했을 소종파들이다.

독자들 가운데 호기심 삼아 극도로 순수한 초좌파주의 사례를 조사하고

싶다면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노신)–국제코뮤니스트전망을 검색해 보라. 이 소종파는 초창기 코민테른 초좌파들(보르디가나 판네콕, 호르터 등)의 후계자를 자임한다. 이들은 하도 ‘좌파’적이신 나머지, 자민통계와 노동자연대를 “자본주의 기구”에 포섭된 반혁명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가해 단체’라고 중상 비방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헛되이) 애쓰는 듯하다.

현재 이런 경향의 영향력은 대단치 않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초좌파주의가 아니라 운동 내 우경화 압력이다.

그럼에도 초좌파주의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초좌파 경향은 좌파노동자회와 알바노조 안에도 일부 있고, 노동당 내 사회당계 안에도 일부 있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안에도 일부 있고, 노사과연 안에도 일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민통계에 거의 적대적이었던 지난 사반세기 동안의 역사 속에서 PD 경향의 단체들과 개인들에게는 많거나 적게 초

스탈린의 '제3기' 이론

대규모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고 혁명가들이 개혁주의자들과의 협력을 일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

좌파적 경향을 부분적으로 발전시킨 적이 있어서 이따금 종파적 태도를 드러낼 때가 있다.

노동자연대도 위에서 사노신–국제코뮤니스트전망 같은 서클보다는 크지만, 여전히 조직 노동계급 내에 대규모 기반을 갖지 못한 작은 조직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중 운동에 대한 무지나 경험 부족 때문에 초좌파주의로 빠질 수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우경화에 맞서기로 한 상황에서 왼쪽으로 막대기를 구부릴 수밖에 없다 해도 현실의 투쟁에서 완전히 단절될 만큼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개혁주의자들과, 한때 혁명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노동자 투쟁을 배신하고도 그 책임을 모면할 기회만 주게 될 것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의 기관지 〈코뮤니스트〉 홍보 웹자보. “선거와 월드컵을 넘어 코뮤니즘으로”라는 추상적 선전은 대중의 현재 상태에 개입하기보다는 계급 세력 균형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자기들의 주관적 희망으로 대체해 의식적 혁명가와 나머지 노동계급 부분 사이의 격차만 키우는 전형적인 초좌파주의 구호다.

추천 소책자

아나키즘
신디칼리즘
초좌파주의
종파주의
중간주의

잘못된
정치적
경향

잘못된 정치적 경향 —
아나키즘·신디칼리즘·
초좌파주의·종파주의·중간주의

개레스 젠킨스, 던컨 핼러스, 앤디 더건,
팻 스탭, 필 테일러 지음
최일봉 옮김 |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사진)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이다. 올해 37살인 추나라는 인도계 아버지와 영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받으며 자랐다. 17살 때인 1995년 누나를 따라 SWP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왔으나(이론물리학 석사), 전업 당 일꾼이 됐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당 재정 관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덧붙인 말이다.

노동계급의 힘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은 역사가 참 길다. 1840년대 영국 차티스트 운동의 지도자 토마스 쿠퍼가 1870년대에 쓴 자서전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은 차티스트 운동 때의 혁명적 노동자들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노동자들이 웃도 말쑥이 차려입고, 도박도 하고, 애완견도 키우더라.’ 그는 노동자들이 너무 풍족해져서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발행된 비어트리스 웹의 일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어트리스 웹은 페이비언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페이비언 운동은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고, 나중에 노

동당의 일부가 됐습니다. 웹은 런던 동부에 살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궁핍하게 사는지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 탓에 너무 부패한 노동자들은 결코 사회주의를 위해 싸울 수 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잠잠할 때면 항상 이런 주장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틀렸음이 거듭 입증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 때문에 거듭 투쟁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노동계급이 변했다는 생각이 좌파 사이에서 요즘처럼 완전히 득세하게 된 것은 지난 2백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인 듯합니다.

노동자의 힘이 사라졌다는 주장들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안토니오 네그리입니다. 네그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직장 안에서 머무는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해체됐다. 그 대신 사회의 전 영역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도래했다. 사람들은 사원할 때도 잠잘 때도 가치를 창출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노동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례는 가이 스탠딩입니다. 그는 네그리와는 다릅니다. 그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뭉뚱그려 ‘프레카리아트’라는 하나의 범주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단이 전후 호황기에는 흔했던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프레카리아트’는 종래의 “캘러리아트”와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스탠딩은 주장합니다.

셋째 사례는 슬라보예 지젝입니다. 그는 네그리의 주장과 스탠딩의 주장을 모두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2011년 영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2백50만 명이 파업을 벌인 직후 지젝은 <런던 리뷰 오브 북스>라는 매체에 눈에 확 띄는 글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봉급쟁이 부르주아지의 반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이라는 특혜를 위해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파업은 임금이라는 특혜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비루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분석들은 계급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흔히 신자유주의를 이 모든 변화를 불러 일으킨 마법의 지팡이인 양 취급합니다.



사진: 조셉 추나라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는 오랫동안 경제사상계의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위기가 당시의 공식 이데올로기였던 케인스주의나 국가 개입적 경제 성장론의 신뢰를 무너뜨리자 신자유주의가 무대의 중앙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당시 주요 국가 지배계급들이 벌이던 일을 정당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이데올

로기였습니다.

둘째, 신자유주의는 이제는 주류 정치권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정책과 제도를 뜻합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사례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특정 유형의 기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 있는 독립적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이전에는 중요한 경제적 결정권을 정치인의 손에서 중앙은행으로 넘겨야 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더 깊고 근원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목하는 첫째 변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 호황 때부터 자본이 국경을 넘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제 무역도 1930년대 대불황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갈수록 생산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됐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더해, 1970년대부터는 자본주의의 위기도 부활했습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이윤을 하락이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 지배계급은 그때그때 실용적 처방을 내렸고, 그것들을 신자유

주의라며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지배계급들이 풀뚝 뭉쳐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눈에 경을 넘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 제 무역도 1930년대 대불황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갈수록 생산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됐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더해, 1970년대부터는 자본주의의 위기도 부활했습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이윤을 하락이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 지배계급은 그때그때 실용적 처방을 내렸고, 그것들을 신자유

주의라며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지배계급들이 풀뚝 뭉쳐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눈에 경을 넘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 제 무역도 1930년대 대불황 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갈수록 생산이 국제적 수준에서 조직됐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더해, 1970년대부터는 자본주의의 위기도 부활했습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이윤을 하락이었습니다. 위기에 대응해 지배계급은 그때그때 실용적 처방을 내렸고, 그것들을 신자유

▶9면으로 이어짐

▶8면에서 이어짐

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혁명 전 이집트 지배계급은 어떤 부문을 어떻게 민영화할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이윤을 저하 문제를 자등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윤을 회복에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철저히 하고 광범한 산업 구조조정(비효율적 기업들이 파산해 효율적 기업들에 할 값으로 인수·합병되는 것)을 거쳐야 이윤율이 확실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기에 노동계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계급에 끼친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960~70년대 이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 투쟁을 억제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한 일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억누른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노동계급이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나 아니냐, 겪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이고, 그 변화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나 아니냐 하는 것이 진정한 쟁점입니다.



신자유주의 상징적 인물인 전 영국 총리 대처.

서비스업의 증가, 현실과 효과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흔히들 ‘서비스로의 전환’이라고 부르는 변화입니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히 영국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영국에서 ‘서비스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로의 전환’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국에서 서비스 부문의 팽창은 1950년대에 시작됐고, 제조업의 쇠퇴는 196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주요 요인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였습니다. 자본가들이 계속해서 더 효율적인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산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점점 더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는 1970년대에 견줘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고용은 많이 줄었는

데 말이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제조업에서 더 빨리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가장 오래된 산업 부문이기도 하고, 기계화가 가장 쉬운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비스 부문에서도 유기적 구성을 높이려는 만만찮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투자가 늘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제조업 제품 가격이 떨어진 결과의 하나로, 노동자들의 서비스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 덕에 소매업과 레저 등 서비스 부문이 팽창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도 커졌습니다. 물류, 운송, 사무직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국에서 특히 급성장한 두 부문은 금융과 공공서비스입니다. 공공서비스는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현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문이기도 합니다. 영국 자본주의가 세계시장에서

잘 경쟁하려면 비교적 건강하고 잘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런던이 유럽 금융의 허브 기능을 하면서 금융업은 다른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벌충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경제는 크게 네 부문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7량이 의료, 교육, 지자체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합니다. 5분의 17량은 소매업, 외식업, 레저, 숙박업, 여행업 등에서 일합니다. 6분의 17량은 금융, 사업서비스(회계나 마케팅) 등에서 일합니다. 이와 비슷한 수가 여전히 제조업에서 일합니다. 물론 이 분류는 대략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유동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공장이 청소 업무를 외주화하면, 그 일자리는 외주화 전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 서비스업에 속하는 병원 노동자.

사진: 로버트

작업장(사업장)이 여전히 저항의 중심인가?

노동계급의 변화와 관련된 둘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작업장(이하 사업장)이 여전히 저항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사업장이 저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밀집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영국 통계는 없지만 미국 통계는 있습니다. 1980년 미국 노동자의 4분의 3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6분의 1은 1천 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놀랍게도 2007년 수치는 이와 비슷합니다. 각각의 구간에서 1~2퍼센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바뀐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줄어든 만큼 대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이 생

거났다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이 우세합니다. 사실, 사업장이 저항의 중심이 되기 위해 꼭 그렇게 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30년대 랭커셔 면직 공장들을 연구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공장들은 전투적 노동자 운동이었던 차티스트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공장감독관들의 보고서를 기초로 면직 공장들의 평균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공장마다 평균 1백37명이 고용돼 있었습니다. 즉, 일부 공장의 규모는 그보다 작았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업장들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마르크스가 살던 시절의 면직 공장들보다 훨씬 더 큰 사업장이 많습니다.

▶10면으로 이어짐



대형 마트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대규모 서비스 사업장이다. 지난해 파업을 벌인 홈플러스 노동자들.

사진: 로버트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후퇴에 반대해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진: 폴 앤서니 데이비슨

였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수 서비스는 비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런던에서는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파업은 이윤 창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전체로 볼 때, 비생산적 노동이 전보다 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힘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생산적 자본은 대부분 체제의 다른 부문에서 창출된 잉여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에 투자하는 자본가는 사회 전체의 잉여가치의 일부를 이자 형태로 획득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가가 이렇게 잉여가치의 일부를 차지하려면 관련 업무를 보는 노동자가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부문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도 않고

그 부문 자본가들이 이윤을 획득하는 것에 기여하지도 않는 비생산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고용된 교사나 보건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도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영국에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아주 잘 조직돼 있습니다. 그들이 투쟁을 벌이면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노동자들의 업무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그 노동자들도 체제를 교란시킬 힘이 있습니다. 예컨대 2011년 영국의 중등학교에서 일어난 파업이 영국 경제에 입힌 손실액은 25억 파운드(약 4조 2천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 일을 하루 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9면에서 이어짐

포드주의에서 토요타주의로, 노동의 성격이 바뀌었는가?

노동계급의 변화와 관련된 셋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동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질문은 흔히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또는 토요타주의)로의 전환’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런 주장은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을 둘러싼 온갖 신화[근거 없는 믿음]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 노동이 대부분 포드 방식으로 조직됐었다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지역과 부문에 따라,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둘째, 토요타가 처음 도입했다는 팀제 노동이나 유연 노동이 보편화됐다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형적 제조업인 영국의 식품가공업에 토요타 방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토요타 방식을 따른다는 자본가들도 사실은 토요타 방식의 일부 요소만을 받아들입니다. 사우스웨일스 지역 일본계 자동차 공장들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경영진이 도입한 변화는 모두 노동자들에게 추가적 임무를 맡겨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셋째, 이런 새로운 생산 방식 탓에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해졌다는 신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생산 방식의 한 가지 요소는 ‘적시JIT 생산 체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국제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 부위에 있는 소수 노동자들의 힘이 매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포드 공장의 엔진 생산 부서 한 곳에

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유럽 전체의 포드 공장을 단 하루 만에 세워 버릴 수 있습니다. 대형 유통 제인의 핵심 물류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 경영 기법이 새 부문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서 쓰이던 기법들을 대형 서비스 부문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도입하려 애씁니다. 특히 보건과 교육 같은 부문에서 더 심한데, 이 부문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는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일제고사나 교원평가 등을 통해 교사들의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크게 강조됩니다. 영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대형 대학교와 대형 병원이 기업인 출신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의 세계화는 노동자 투쟁의 세계화를 낳았다. 남아공 금속노동자들

불안정성 증대와 프레카리아트

노동계급의 변화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불안정해졌는가? 김하영 동지의 [맑시즘2015] 강연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과 한국의 구체적 통계 수치와 상황이 다른데도 연관된 주장들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에 관해 논의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본에 견줘 노동은 언제나 불안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 안정과 고용 계약은 비교적 현대의 현상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가장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도 고용 안정 면에서는 19세기의 가장 안정적인 노동자보다 더 안정적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안정돼야만 노동자들이 조직을 건설하고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도 있었고,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득도 높은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890년대 런던 동부 지역에서 성냥 공장 여성 노동자들과 가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당시 이 노동자들이 투쟁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 금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는데, 바로 레닌이 “노동자죽”이라고 [잘못] 불렀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둘째, 불안정성에 관한 주장들은 현실을 심하게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논자들은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범주를 나눕니다. ‘비전형적 노동’이라는 범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시간제 노동, 임시직 노동, 학생들의 노동 등등을 모두 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간제 노동자들은 임시직도 아니고 불안정하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시간제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인데,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흔히 한곳에서 10~20년을 일하고, 흔히 조직이 있고, 흔히 투쟁을 벌입니다.



최근 고용 불안정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불안정성에 관한 많은 주장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반화해 버리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임시직의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6.6퍼센트가 임시직인데, 원하지 않는데도 임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체의 2~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스페인이나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불안정성에 관한 주장들은 이런 것을 노동자 전체의 일인 양 말합니다.

불안정성에 관한 많은 주장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꽤 안정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를 무시하기 때문에 과장입니다. 1980~90년대 북미 지역에서는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1990년대 유럽에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처지가 매우 열악한 집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2~3년 정도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졸업하고 나서는 흔히 정규직으로 취직됩니다.

부차적인 점인데, 불안정성에 관해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일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대학교들에서는 근로계약 조건이 악화돼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전체의 일처럼 느끼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

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에게 그저 전달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시장은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느 정도 완충시키기도 합니다. 자본은 노동을 지배하지만 노동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유능한 노동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자본가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자본가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단결을 이룰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노동계급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 단결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프로젝트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일반으로 말해, 영국의 대다수 대규모 사업장에는 비교적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자와 비교적 불안정한 노동자가 함께 투쟁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고, 불안정한 노동자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처지의 노동자들도 이런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 계급적으로 더 이익입니다. 불안정 고용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실제 현실보다 더 불안하게 느낄까?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외주화와 해외이전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실제 현실에 비춰 너무나도 큼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해 외주화와 해외이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의식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 영국에서도 노동자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용은 늘고 있었고, 정리해고가 특히 많았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노동자들이 오랜 패배의 시기에서 아직 다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직장에서 사용자의 힘이 더 셉니다. 그 덕에 사용자는 마음대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노동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쫓이는 데 반해 집단으로 싸워 본 적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제라도 버려질 것 같은 불안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의 세력관계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불안정성 담론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청중토론

Q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 안정이 현대적 현상이라는 주장이 매우 이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투쟁으로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이 형성됐는데, 영국에서 안정적 노동시장이 형성됐던 배경이나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여러 종류의 신자유주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셋째, 사업장이 저항의 구심이 될 수 없다는 주장들을 유형별로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넷째, 한국에서 감정 노동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영국에도 그런 논의가 있는지, 어떤 쟁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정적인 고용의 정착은 나라마다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다른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19세기까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는 연기계약노동자[당시 북아메리카에 새로 진출한 자본가들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영국 등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뱃삿을 선불로 지급한 뒤 그들을 몇 년간 하인으로 부렸다]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바뀐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안정적인 노동

조합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노동조합도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정착됐다는 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투쟁수준이 아주 낮을 때, 안정적이었던 일부 고용이 도로 나빠지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자본가는 오로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노동을 불안정화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 질문에 답하자면,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현상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전개된 양상은 영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변화에 관한 논의도 많은데, 실제로는 중국이 국제 시장 진출을 시작한 시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에 중국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 시기의 국가자본주의 덕분이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국가를 통해]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아주 중앙집권적인 국가 기구를 갖고

▶11면으로 이어짐

▶10면에서 이어짐

있고, 경제에서 국가 부문의 비중도 매우 큼니다. 비록 일부 중국 민간 자본가들이 해외 자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중국식 신자유주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볼리비아 같은 나라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강요됐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자본주의 국가 위계서열에서 한참 아래쪽에 있는 국가죠. 그래서 다국적기업들이나 미국과 여타 선진국의 지배자들은 볼리비아가 해외 자본에 활짝 개방되는 것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조차 신자유주의가 식민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리비아 지배계급의 일부분은 아주 흔쾌히 이런 민영화 프로젝트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엄청나게 불렀죠.

셋째 질문, 즉 작업장이 저항과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장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자율주의 이론가인 존 홀러웨이는 자본주의의 이른바 ‘균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균열’은 자본주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공간을 뜻하는데, 그런 공간을 자본주의 주변부에서부터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농민 봉기를 들 수 있겠죠. 또한 서구 사회에서는 주변화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점거, 무주택자들의 건물 무단점유,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센터(유류 건물 같은 것들을 점거해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자율주의 이론가인 토니] 네그리는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노동착취가 벌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항은 잠재적으로 어디에서나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는 [저항의 주체로] 다중을 강조하는데, 다중은 다종다양한 주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네그리는 어디에서나 저항이 시작될 수 있고 특별히 더 중요한 주체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그리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들(2000년대 반자본주의 운동, 사파티스타 등) 모두를 그저 치켜세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마이클 하트와 공저한 두 번째 책 《다중》도 그런 논조로 끝을 맺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특정 사건이 벌어져 마치 화살을 쏘듯 우리를 살아 숨쉬는 미래로 밀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정치적 행위일 것이다.”

[넷째.] ‘감정 노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개념으로 ‘정서 노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개념도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저서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그들의 논자인즉슨, 노동이 더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노동이 작업장에서만 벌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문제점인 이유는 오래

전부터 자본가들이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부러왔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만 떠올려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생산 과정을 따릅니다. 감정 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세워서 오늘날 작업장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Q 한국에서 많은 좌파가 계급 개념에서 멀어지면서 보인 경향은 영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이 스탠딩도 최근에야 소개됐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계급을 문화적인 견지에서 정의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적 전회’와 관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A 간단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계급에 관한 관점의 변화는 여러 가지 추세들이 수렴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슬라보예 지젝이 상당히 유용한데, 지젝은 지적 유형의 방향을 보여 주는 풍향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에서 보이는] 두 가지 추세는 모두 노동계급의 패배 경험과, 소련의 몰락으로 자본주의를 대신할 체제가 없다는 실망감이 결합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탈린주의 체제에 큰 기대를 품었던 사람 중 많은 수가 포스트구조주의적인 접근법으로 확 넘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스트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접근법이 우세했습니다. 관련 논쟁에서 안토니오 네그리가 중요했던 것은 그가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 일종의 다리 구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포스트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책갈피)을 썼을 때는 대학가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아주 우파적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맹비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자본주의적 포스트구조주의 사상이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그리는 미셸 푸코나 질 들뢰즈 같은 사람을 특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저항의 형태를 제시하려 합니다.

반면에 가이 스탠딩은 주류 사회학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이 스탠딩의 계급론은 마르크스의 계급론과 닮은 것이 별로 없고, 어떤 점에서는 막스 베버의 계급 개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등장을 강조하는 다른 논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리처드 세넷, 지그문트 바우만, 올리히 베크도 그렇습니다. 가이 스탠딩이 이들보다 성공한 것이 있다면 자기 PR(홍보)에 크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탠딩은 심지어 네그리보다도 사람들의 상식에 잘 호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네그리보다 훨씬 읽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서로 융합하는 게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Q 1970년대 말 에릭 홉스봄은 노동자들의 ‘경제주의적 투쟁’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노동계급에게는 사회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노동자 집단끼리 반목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고, 얼마 뒤 노동계급이 사회 변혁 주체라는 생각에 회의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홉스봄의 책[《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치, 2012년)을 말함]도 그람시를 인용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적잖은 좌파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홉스봄이 노동운동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계급 안에 현실적으로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격차를 줄이자는 생각이 노동운동 안에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기업 간의 격차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격차를 줄이자는 그런 운동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홉스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홉스봄은 노동계급의 입상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홉스봄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홉스봄의 정치는 사실상 인민전선 시기 공산당의 정치에 머물렀고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EP 톰슨과 비슷하게 홉스봄도 계급을 노동자들의 정치적 운동과 연관지어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운동이 위기에 빠지면(1970년대 말 영국처럼) 마치 계급 자체가 위기에 빠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홉스봄은 그런 관점을 ‘중단된 노동계급의 전진?’이라는 제목의 논문(1978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세, 즉 좌파의 위기와 노동계급 운동 후퇴라는 시련에 직면해 계급 개념에서 멀어지는 추세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영국의 노동운동 일부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공산당이 처한 위기의 해결책으로서 유러코뮤니즘으로 눈을 돌렸던 좌파들에게 그랬습니다. 어떤 점에서, 홉스봄이 유러코뮤니즘을 지지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인민전선 노선으로 되돌아간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유러코뮤니즘 이든 스탈린주의적 인민전선이든] 노동계급을 [다른 계급에] 정치적으로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에 관한 홉스봄의 초기 저작들 [특히, 《혁명의 시대》와 《자본의 시대》를 말함]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질문, 노동계급 내 불평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일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앤디 브라운과 케빈 코어가 오래전에[1993년 여름] 노동귀족론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글은 서로 조건이 다른 노동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임금은 함께 상승하고 함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 주는데, 이는 토니 클리프도 [1957년에] 주장했던 바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노동계급의 단결을 지지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이유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물질적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과 노동조건을 똑같이 만들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계급이 부문 별로 분열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Q 닐 데이비슨이 국제사회주의 경향은 자본주의의 연속성만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변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너무 안 보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A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닐 데이비슨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다. 그럼에도 저는 자본주의의 연속성만을 보는 것의 위험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주의 전통과 그것의 이론적 유산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론가들이었던 토니 클리프나 던컨 핼러스, 크리스 하먼 같은 이들을 떠나보낸 것은 큰 비극이죠. 저는 크리스 하먼의 조사를 쓰면서 새 세대들이 집단으로 그의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우리에게 마르크스주의는 살아 숨쉬는 전통입니다. 세상이 변하기 마련이고 우리는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우리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조주의자들이 되겠죠. 이론적 명료함이 없으면 운동에 만만찮게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뒀야 할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토니 클리프도 자주 말했던 것인데,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뀌는 세계를 잘 분석하려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들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려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토니 클리프가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에서 사용한 방법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은 우리가 이론을 발전시킬 때 학술 마르크스주의의 유행을 좇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신자유주의에 관한 닐 데이비슨 주장의 일부는 운동 내의 ‘상식’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주장이 특별히 대담하다거나 대단한 혁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전통의 최상의 요소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는 비록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더라도 자본의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그 본질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의 생산관계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자본주의의 모든 발전 단계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핵심적인 특징들은 바로 그 생산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물론 생산력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를 포착하고 또 탐구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기본적 사회관계는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도 봐야 합니다. 그런 변화는 일상적인 투쟁의 전술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노동자 혁명이라는 우리의 전체 전략은 바꾸지 못합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전호진

추천 책

세계화와 노동계급

빌 던, 크리스 하먼 지음 | 최용찬, 차승일, 김영재 옮김
책갈피 | 2010년 | 4,900원





맑시즘2015 하이라이트

계급이란 무엇인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센 추나라가 2월 6~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5'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추나라가 2월 8일 강연한 '계급이란 무엇인가'를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첨가한 말이다.

조센 추나라

흔히 '계급'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떠올립니다. 그런 기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외모, 키, 머리 색깔 같은 것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청바지나 삼푸 같은 것을 팔 때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사회의 핵심 분단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집단의 힘과 그 집

단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 뿐 아니라, 사람들을 집단 행동에 나서게 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봐야 합니다.

베버의 계급론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의 계급론은 학계의 주요 이론인 막스 베버의 계급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막스 베버는 계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계급'을 말할 수 있다. ① 많은 사람들

이 생활 기회라는 특정한 인과적 요소를 공유할 때, 다만, ② 그 요소가 오로지 상품과 소득 기회를 갖느냐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표현될 때, ③ 그 요소가 상품 노동 또는 노동시장이라는 조건 하에 있을 때."

베버가 상당히 어렵게 꼬아서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 베버 주장의 핵심은 사람들이 소유한 재화, 시장에서의 지위, 직업의 종류에 따라 계급이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계급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직업에 따라 계급이 천차만별로 나뉘게 됩니다. 마르크스식 계급 개념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베버식 계급 개념에서는 '만국의 건축가여, 단결하라'거나 '만국의 치과의사여, 단결하라'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베버는 파편화에 기초해 계급 개념을 규정하고 그 파편화를 극복할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 반면, 마르크스의 개념에서는 사람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결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계급 개념은 베버의 개념보다도 훨씬 조야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흔한 계급 구분법은 사람들을 A, B, C, D, E의 다섯 그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컨대 A 그룹에는 전문직, 경영직, 관리직이 속합니다. 최하위인 E 그룹에는 불안정 노동자, 하위직 육체 노동자가 속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분류법 안에는 자본가가 없습니다. 자본가가 없으면 당연히 착취도 없겠죠. 반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 통용된 구분법에서 자본가는 정신 장애인과 같은 범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웃음]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 — 계급은 사회적 관계다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왜 더 유용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느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한 사회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가 사회에서 부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사회 관계를 생산관계라고 불렀는데, 생산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착취 관계입니다. 우선 착취를 차별이나 천대의 일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급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노동을 해야 하고, 그들의 노동 덕분에 소수는 노동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그 소수가 다수에게서 부를 뽑아 내는 방법, 그것이 착취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 소유주들은 채찍을 휘둘러 노예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자본주의 착취 관계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고, 임금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몫 이상으로 창출하는 가치를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 이익의 원천입니다. 착취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



마르크스주의 계급 개념은 사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공통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

나 착취 관계의 양쪽에 있는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내재돼 있습니다.

생산수단

둘째,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입니다. 이는 부를 생산하는 수단을 사회의 어느 집단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봉건제 하에서 농노들은 토지, 농기구, 가축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착취 관계는 경제적 강제력보다는 영주들의 무력으로 뒷받침됐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가 지배하는 생산수단에 가서 일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착취 관계는 주로 경제적 방식으로 강제됩니다. 마르크스는 임금노동자가

이종적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누구를 위해 일할지 자본가를 고를 자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하지 않고 굶어죽을 자유가 있습니다.

요컨대 두 가지 질문을 던져 한 사회의 계급 구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가? 둘째, 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는가? 이런 접근법의 가장 큰 강점은 계급을 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학은 계급을 독립적 범주들로 봅니다. 마치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인 통조림 캔인 것처럼 말이죠. 반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계급 간 적대와 계급투쟁의 발생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착취 관계를 둘러싸고 언제나 투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은 경제 환원론인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 하나는 마르크스주의가 '경제 환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경제가 전부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 다. 경제가 한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만 주장했습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잘 표현했습니다. '경제는 전부가 아니다. 궁극적 결정 요인일 뿐이다.' 사상·정치·법률 등도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제가 가장 근원적입니다.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사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 피케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잘 묘사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오로지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급을 구분하는데, 피케티가 제시한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소득 불평등이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계급 구조를 대략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전체 인구의 1~2퍼센트밖에 안 되는 극소수 부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중요한 자본을 대부분 소유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인구의 5~10퍼센트 정도 되는 놀고 먹는 부자들과 고위 경영자 층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나머지 대다수 인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이런 묘사는 자본주의 계급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소득과 자산 수준에만 집중하므로 진정한 계급 구조를 모호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들은 소득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계급의 일부이고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어떤 사람들은 유럽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동귀족'들은 집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으니 더는 투쟁을 이끌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앙드레 고르즈라는 프랑스 사상가는 1968년 초 《노동계급이며, 안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로 몇 개월 뒤 프랑스에서 바로 그 '노동귀족'들이 세계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한편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운동을 주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1890년대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의 노동자들은 너무 빈곤하고 사기가 낮아서 더는 투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동빈곤층이 신노조운동을 일으켜 영국 노동운동의 양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투쟁이 고조될수록, 처지가 비교적 좋은 비교적 열악하든 노동계급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싸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은 차별을 무시하는가?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마르크스주의가 계급 외의 중요한 사회적 경계선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문화적 취향 같은 사소한 것도 있지만, 인종, 성, 성적 지향 같은 훨씬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종차

별이나 성차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이 인종과 성에 따라 분열되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지배가 유지되는데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은 이런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노동계급 투쟁이 고조될수록 노동자들은 인종, 성, 성적 지향에 따른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단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게 되면 이런 차별의 물질적 토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의식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가?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에 대한 셋째 비판은 노동계급이 자동으로 체제에 맞서 싸우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에게 계급이란 주관적인 자기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초창기 저작인 《신성가족》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들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

인지, 그리고 그들이 투쟁에 나서게 하는 객관적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은 거의 언제나 모순돼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 때문에 소외되고, 파편화되고, 원자화돼 있다고 느낍니다. 경제적 압박 때문에 매주 월요일 일터로 내몰리다 보면 스스로가 아주 약하고 초라한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감, 투쟁의 기억,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공감 같은 것들도 느낍니다.

둘 사이의 모순 때문에 노동계급 내에서 보수성이 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과 자신을 결속시키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힘을 자각하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바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이 처한 객관적 조건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산을 멈추고 사회를 운영할 잠재력이 있다.

노동계급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

마지막으로, 마르크스가 왜 노동계급을 특별한 존재로 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 혁명을 이끌 수 있는 규모와 힘을 가진 유일한 세력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가들은 프롤레타리아를 세계적 규모로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창출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은 20억 명 정도 됩니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힘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체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흡혈귀는 희생자의 피를 빨지 못하면 죽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

을 벌일 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조업이나 기타 전통적 산업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 이윤을 많이 얻는 소매업·서비스업 부문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힘이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주목한 둘째 이유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도시에 엄청난 규모로 몰려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모여 삽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 단위로도 대규모로 모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노동자 조직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은 한 곳에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들은 대체 가능한 동질적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조건에 처하게 됩

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끼리도 쉽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사흘 동안 ‘맑시즘2015’에서 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영국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입니다.

전투적

마르크스가 노동계급을 중시한 셋째 이유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하므로 노동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하고, 그런 압박 때문에 노동계급은 세계 역사상 가장 전투적인 계급이 됐습니다. 노예나 농민 반란은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몇십 년에 한 번 꼴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두 개의 주요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자본가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노동계급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양대 계급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노동계급의 범위를 조금 확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자녀처럼 그들 자신은 노동자가 아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계급과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노동계급이 착취당하는 정도에 따라 삶이 좌우됩니다.

병원과 학교 등에서 일하는 공공 부문 노동자들처럼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 운영과 [간접적으로] 이윤 창출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대체로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처지와 연동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노동계급 다수와 이해관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과 자본가 계급 외에도 두 부류의 작은 집단이 양대 계급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벤처 사업가 등 마르크스가 프리부르주아지라고 부른 독립적 소(小) 소유자 집단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이 집단도 변했습니다.

오늘날 가족들의 노동력을 이용해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 구실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임금을 받는 노동자 구실을 하는 이중적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프리부르주아지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소유하므로 자본가들에게 동질

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일하므로 노동계급에게 동질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농민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농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집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임금노동자가 농민보다 많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농민은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회집단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혁명에 성공하려면, 농민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자 혁명으로 농민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농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신중간계급

양대 계급 사이에 끼어 있는 둘째 집단은 흔히 ‘신중간계급’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가들이 직접 작업장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본가들은 자기 대신 작업장을 운영할 특수한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장 내에 경영직·관리직 등 관료 계층이 형성됐습니다.

이 관료층의 최상층은 자본가 계급과 섞여들게 됩니다. 반면 관료층의 최하층은 걸보기에는 노동계급과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계층에는 매우 모순된 처지에 있는 온갖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고 체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 구실을 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더 심하게 쥐어짜고 단속하는 구실을 하기도 합니다.

계급투쟁이 일어나면 이 집단은 양대 계급 중 어느 한쪽으로 이끌립니다. 노동자 투쟁이 강렬할수록 이 계층의 하층 일부가 노동자 편으로 이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집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노동운동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등장하는 훨씬 더 풍성한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노동자들은 혁명적 분출 때마다 새 노동자 권력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1871년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리 코뮌을 건설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노동자 평의회 같은 기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려 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노동계급의 본능을 표현했습니다.

21세기에는 지난 세기보다 더 많은 노동자 민주주의가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계급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정리

어떤 분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을 프티부르주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소유 여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 주인들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한 사람이 자본가 구실과 노동자 구실을 둘 다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라면 1인 3역을 하는 셈입니다. 자본가 구실과 노동자 구실을 하면서 지주 구실까지 하기 때 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티부르주아의 지위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영국에서 농민들이 땅에서 쫓겨난 후 프롤레타리아와 농업 자본가로 분화하는 과정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레닌은 러시아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점차 편입되면서 러시아 농민층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농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소상공인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들의 일부는 가족의 생계를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성공해서 농업 자본가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토지를 잃고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레닌이 지적했듯이, 농민 내에도 계급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

다음으로는 노동계급 해방이 다른 집단도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한 동지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인종차별은 자본주의 초창기에 대서양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리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을 죽도록 일시켜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의 일부는 노예 소유주였습니다. 인종차별은 흑인 노예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 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지배자들은 인종차별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쓸모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종차별 이데올로기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일부를 지배계급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데도 유용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레닌은 사회주의자가 천대받는 사람들의 호민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성 차별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차별도 계급 사회의 산물이었습니다. 인류는 정착해 농경을 하기 전에는 매우 평등주의적인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성별 분업이 있었지만, 여성의 노동이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농업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극소

수 구성원만이 잉여 생산물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육아와 병행할 수 없는 형태의 노동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즉,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 차별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주요 생산 활동에서는 여성이 하는 구실이 점점 줄어든 반면,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는 여성의 책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은 부를 물려주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계급 여성들도 차별당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과거의 가족 제도를 물려받아 변형시켰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은 전과 달리 생산의 단위가 아니라 소비의 단위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하에서는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다음 세대 노동력을 키우는 곳으로서 가족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을 착취 체제에 끌어들이면 이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성들은 점점 작업장으로 편입돼 남성들과 함께 착취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여성들이 노동계급으로서 힘을 갖게 되고 남성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여러 번의 공공부문 파업에서 파업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족의 구실을 이해하면 청소년들이 받는 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은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압력과 긴장을 고스란히 재현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교육은 다음 세대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규율과 평가가 그토록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다음 세대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면보다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면에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프레카리아트

마지막으로, 프레카리아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카리아트론은 그저 노동계급의 일부의 처지가 비교적 열악하게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새 계급이 탄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처지가 나은 노동자의 임금과 비교적 처지가 열악한 노동자의 임금은 함께 올라가고 함께 내려가는 경향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같은 것입니다.

프레카리아트론, 특히 가이 스탠딩의 프레카리아트론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를 규정하면서 다양한 집단을 뭉뚱그려 버립니다. 스탠딩은 우선 임시직 노동자를 프레카리아트에 포함시킵니다. 영국에서 임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으로, 스탠딩은 임시직보다 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테크원 노조 등 삼성에 맞서 연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 처지가 다양한 노동자들도 단결해 투쟁할 수 있다.

가 훨씬 더 많은 시간제 노동자를 프레카리아트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제 노동자들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합니다.

이에 더해, 스탠딩은 ‘자신의 업무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프레카리아트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평범한 직장인은 누구나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스탠딩은 중국 노동자 전체도 프레카리아트에 포함시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놓고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단은 어떤 면에서도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다른 별도의 계급이 아닙니다.

둘째, 프레카리아트론은 역사를 무시합니다. 프레카리아트론은 1950~60년대 서유럽 노동자들이 누렸던 조건을 ‘정상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초기의 노동계급은 오늘날의 어떤 노동자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습니다. 1890년대 런던의 항만 노동자들은 어떤 종류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항만에 줄 서서 누군가 일을 시켜 주기를 기다리곤 했죠. 그런데 처지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이 노동자들이 싸울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런던 항만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당시 많은 좌

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셋째, 프레카리아트론은 노동계급의 약점을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착취할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 의존하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객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술도 자본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컨대 스타벅스 경영진이 고객 서비스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노동자를 발견한다면, 그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붙잡아 두려 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 노동자를 새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돈도 덜 들기 때문이죠.

경제 위기 때 영국 기업들은 인력 보유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임금은 사정없이 쥐어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숙련 노동자를 해고하지는 않고 붙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15년 간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인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상사들의 마구잡이 닦달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낮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닦달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언제든 쫓겨날 수도 있다고 느끼다 보

니, 투쟁에 나설 자신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무리 작은 투쟁에서라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카리아트론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노동자들과 같은 사업장과 생산 네트워크에서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자들도 비교적 처지가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런던의 어느 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외주화되면서, 영국 법무부가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이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그 대학교에서 처지가 가장 안정적인 노동자들부터 가장 불안정한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불안정 노동은 철폐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파업을 주도한 사람들은 혁명적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즉, 계급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실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김지은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장호중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의료 모델을 따르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병원 노동자들의 사기와 자신감이 충분하지 않은 때에 의료 민영화를 신속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또 국회 통과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논란을 줄이려고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한 부대사업 확대 조치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써가며 풀어 주기도 했다.

박근혜는 지난해에 이 중 일부 정책들을 강행했고 올해에 남은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 올해의 코드명은 '규제 단두대(기요틴)'이다. 박근혜가 여전히 의료 민영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에 장애가 되는 핵심 규제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의 네 차례 파업은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일단 막거나 꼬이게 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도 병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구실을 했다. 병원 노동자들은 올해에도 의료 민영화에 맞서는 한편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악과 공공부문 2차 '정상화'에 맞선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노조와 경북대병원노조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가 국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데도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했다. 심지어 각종 규제를 풀어 서비스 산업을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에 동의해 주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정치연합에 의존하지 말고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의료 관광 —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시험대

의료 민영화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삼성경제연구소가 대략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고 노무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결같이 추진돼 왔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정책을 '의료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다는 점이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한편 자본가들도 경제 위기와 규제(건강보험 등)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의료 관광 분야에서 민영화를 적용해 장차 그 모델을 국내외로 확대해 나가려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코드명은 '규제 단두대' 앞으로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2014년 6월 보건의료노조 1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예컨대, 원격진료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적용 사례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안정성과 효과는 자본가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면 첨단 의료기기와 스마트 기기들, 통신망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출도 크게 늘릴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를 위한 준비를 해 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의료 관광은 여행(진료)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 때문에 원격진료를 시험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니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셈이기도 하고 민간보험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셈이다. 외국 병원이나 의료진이 내국인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진료하는 체계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 병원의 운영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료 관광은 그 자체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데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그럴듯한 명분을 줄 수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다른 부문의 자본가들에게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뒤 가장 먼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 듯하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친여성향인 의사협회와 충돌도 불사하면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였다.

원격진료 허용 — 국회 계류 중, 시범사업 확대 진행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14년 초에 정부는 노동자들이 투쟁 채비를 채 갖추기 전에 밀어붙이려 했지만, 의사협회와 특히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미뤄야 했다. 2014년 3월 이후 의사협회는 정부의 회유책에 휘둘러 우왕좌왕하고 분열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이 이들과는 독립적으로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며 법안 처리 시기를 계속 지연시켜 왔다.

정부는 최근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보다는 시범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4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난다). 여전히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크고 원격진료가 그 상징처럼 돼 있어 눈치를 보는 듯하다.

의사협회가 2014년 9월 이후 시작된 시범사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 때문에 시범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가 다른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 허용에 반대하는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 여전히 성공 사례 없음

제주도에 산일병원을 유치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폭로되며 무산됐다. 이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여러 가지 특혜에도 자본가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투자에 뛰어 들지 않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장의 협소함과 건강보험제도 등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다.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진료 기간, 보험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하는 듯하다.

기존 병원들의 영리화 확대 — 허용됐지만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음

영리 자회사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됐지만 아직 신청한 의료법인이 두 곳밖에 안 된다. 정부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한 의료법인(성실공익법인)에만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도 완화하려 한다.

한편 여전히 병원 외부 투자자가 병원 자회사에 투자해 이윤을 가져가는 데는 법적인 제약이 남아 있는 듯하다. 〈한국경제〉 등은 정부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정부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용이하게 해 주는 포괄적 조항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 상정을 거들었고 몇 가지 단서를 달아 통과시키려 하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메디텔 등 의료 관광 관련 부대사업에서 규제가 많이 완화됐지만, 애초 계획 중 일부는 보류됐다.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려 주려던 조처는 의료법 위반 논란 끝에 몇 가지로 제한됐다. 많은 병원들이 눈독을 들였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도 빠졌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 항목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바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려 한다.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됐는데 이는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정부의 영리 자회사 허용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으로 헬스케어 등 기존 대학병원들의 자회사 설립에 제동이 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정부는 산학협력법의 유권해석을 바꿔서라도 합법성을 부여하려 한다.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영리 자회사 설립의 교본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 기술지주회사들이 의약품과 의료 기술에 특허를 내 수익을 얻으려 하는 만큼 전체 의료비 상승을 이끄는 주범이 될 것 같다.

신의료기술 평가 기준 완화와 임상시험 활성화 — 현재 진행 중

식약처 고시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한 경우다. 절차가 간단하다 보니 이미 많이 진행된 듯하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해부터 지하철 광고판에 부쩍 들어난 임상시험 광고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인수합병 허용 — 국회 계류 중

2014년 10월에 입안돼 12월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는데 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재벌 병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데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어 이 조처가 국회에 상정될 경우 논란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소개·유치·알선 — 국회 계류 중

이 의료법 개정안은 2013년 5월 31일 정부가 국회에 회부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조처는 장차 병원들이 민간보험과 계약을 통해 거대 의료기업으로 나아가는 통로 구실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허용하겠다고지만 한미FTA 등의 규제 완화 조처 때문에 내국인에게 확대될 수 있다.

맑시즘2015 하이라이트

오늘날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자 투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월 6~8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5'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추나라가 맑시즘 개막식에서 한 연설이다.

조셉 추나라

저는 오늘날의 위기에 대해서 연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5년 동안 '회복'기를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회복'이 위기보다 더 나빠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공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1920년대 이후로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구상에서 다섯 번째로 부유한 나라이지만,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섭니다.

당연하게도 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동지들과 짧게 공유하고 싶은 가장 최근의 소식은 바로 어제 영국의 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입니다. 이 파업에 2만 5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투쟁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버스가 민영화된 이후 총 18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저마다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 요금도 80가지가 넘습니다. 이번 파업은 민영화된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런던 버스 노동자들은 인종 구성이 전 세계 어느 곳, 어떤 부문보다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그 2세대는 단지 인종차별의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반격에 나설 때 핵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보다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쁩니다.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그리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부의 교육 지출도 3분의 1 이상 깎였고 청년 중 50퍼센트가 실업 상태입니다. 그리스의 자살률도 45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고 유럽연합과 IMF, 유럽중앙은행은 앞으로 25년 동안 긴축을 더 감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민중이 구제금융을 갚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기금으로 그리스가 받은 돈의 90퍼센트는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IMF에, 유럽중앙은행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민중은 은행들과 IMF에게 빚진 것이 한 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리자에 투표했던 것입니다.

지금 독일 정부는 그리스 부채를 단 한 톨도 깎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독일 정부가 이런 노선을 고수한다면 총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작업장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그런 투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를 보내야 하는 까닭입니다.



2011년 10월 19일 총파업을 벌이고 아테네 도심을 행진하는 그리스 노동자들

세계 경제: 더블딥을 넘어 트리플딥으로?

세계 모든 곳에서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더블딥[경기 후퇴가 있는 뒤 일시적 회복기를 거쳐 다시 더 심각한 경기 후퇴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트리플딥, 그러니까 세 번째 경기 후퇴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 위기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겁에 질려, 양적완화를 해 시장에 돈이 철철 넘치게 하고 금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부족하다거나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고 자본가들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이윤율이 충분

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는 상황이 낫다는 말들이 많지만 암울한 유럽 경제에 비춰 봤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이는 회복은 대체로 소비 증가와 값싼 신용에 기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던 중국의 경우, 중국 자본가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장 규모에 비해 과잉 투자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은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오늘날의 상황을 봤다면 자본주의가 전반적인 위기임을 간파했을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축적된 막대한 자본과 부채를 유지하기에 이윤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이윤율

그래서 지배계급도 '자본주의의 장기적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부 편집장이 쓴 놀라운 칼럼 한 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노동력과 자본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능력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체제가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면 도대체 자본주의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문제는 자본주의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는 위기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체제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깨뜨리고 또 우리 삶을 갈가리 찢어놓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고향을 쥐어짜 낼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 덕분에 이윤율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하게 회복하려면 훨씬 더 큰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값싼 신용과 낮은 유가에 힘입어 겨우겨우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파산해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실 채권들이 결국 디폴트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내다보자면, 오랫동안 성장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 반짝하는 회복 국면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큰 경기 후퇴가 세계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폭발적 잠재력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때에는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왔을 때는 2010년이었는데, 당시 저는 이 위기가 오래갈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서 총파업이 벌어졌고, 그리스에서는 2010~2011년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 스페인에서는 대규모 광장 점거 시위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광원 노동자들이 가족들을 먹여살릴 만큼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했다가 끔찍한 탄

압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리카나 광산에서 광원 34명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투쟁을 계속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1년 아랍 혁명이 터져 나왔고 굶주림과 독재에 맞서 대중이 독재정권을 타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아직까지 이런 투쟁들 중 어느 것도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당면 과제로 삼을 만큼 멀리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노동계급의 투쟁이 지속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지배자들에 맞서 들고 일

어나 그들을 압도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만큼의 힘과 규모를 가진 세력은 오직 노동계급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뚫을 만큼 자신감과 정치력을 발전시킨 노동계급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투쟁 승리 경험을 통해서만 그 정도로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이 겪는 착취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언제나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계급이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

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서 그것을 현재에 적용할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영국의 초창기 마르크스주의자인 윌리엄 모리스가 1893년에 쓴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미래 속에도 그 과거는 살아 숨쉴 것이다." 자본주의 사상들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토론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송조은